

빛의 향연 '익산서동축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개막 D-10, 오후·심야시간대 집중... 체류형관광축제 기대

서동 선화의 러브스토리가 빛의 향연으로 피어나는 익산서동축제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2 익산서동축제 가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금마면 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빛의 힐링을 선사하는 축제 이미지를 부각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동, 백제 왕이 되었다를 주제로 익산시가 주최하고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오후와 심야시간대에 특화프로그램을 집중해 관람객들에게 체류형 관광 축제

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특히 인원 제한 없는 축제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서동축제의 정체성 강화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프로그램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 서동축제의 어린이 주인공을 선발하는 '서동선화 주니어 선발대회'와 지역의 번영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원하는 '무왕제례'를 시작으로 개막행사와 야간경관 점등을 거쳐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빛의 힐링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백제유 등 전시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점

등되며 낮에도 화려한 색상의 유등을 관람 할 수가 있다.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11월 1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서동공원 야외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주 무대에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의 '몽연 : 서동의 꽃 년버벌 댄스뮤지컬 공연과 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의 '허균, 합리애'를 선보인다. 백제문화재단과 연계한 미마지 오야사 공연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이 방문객을 맞는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색 공연으로 금마저수지를 무대로 물과 자연을 실재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는 수상실경 공연이 매일 펼쳐진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본격추진

군산시는 구암·조촌분구(구암동, 조촌동, 개정면 이동리) 인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구암·조촌분구는 그동안 합류식 및 일부 분류식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사업추진으로 합류식 구간에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됨으로써 각 가정마다 개인정화조가 폐쇄돼 분뇨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분류된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해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연안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개선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분류식이 완료된 조촌동 구간은 오수관로 설치 이후 약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써, 급속 사업에 오수관로 개량도 함께 신청해 국비 지원을 받아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구암·조촌분구는 2019년 환경부로부터 최초 사업 승인시 총사업비가 250억원이었으나, 설계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주민 및 시설이 없도록 꼼꼼하게 반영했고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230억원이 증액된 480억원으로 변경해 확정했다.

시는 업체선정 등 계약절차를 통해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오수관로 신설 21km, 개량 6km 등의 관로 정비와 1,343가구의 배수설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번 사업으로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가정의 배수설비 공사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폐철도가 도시숲 변신... '국비 35억 확보'

오산면 폐철도 유희부지 2km에 숲 조성 사업 선정

익산시가 송학동과 오산면 폐철도 부지를 도시 숲으로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오산면 폐철도 유희부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까지 오산면 폐철도(송학교~오산초등학교 방향) 2km구간에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40억원을 들여 도시숲을 추진한다.

앞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송학동 폐철도(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문 앞) 유희부지 1.5km(총사업비 30억원) 구간을 연결하면 총 3.5km 구간에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규모 기후대응 도시숲이 완성된다.

시는 장항선 복선전철화로 발생한



익산시가 송학동과 오산면 폐철도 부지를 도시 숲으로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

폐철도 유희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후대응 도시숲 중 송학동 구간은 올해 실시계획을 완성하고 내년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황철호 부시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20일 군산 실내체육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7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59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구.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황 부시장은 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인 군산실내체육관에 대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영상 촬영 드론을 활용해 육안

으로 관측이 어려운 취약 지점까지 자세히 확인하는 등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현장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할 예정이다.

황 부시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대상시설물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상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인 점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주요사업지 현장점검 추진

익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양 센트럴파크와 수소 버스 충전소 건립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폐지 후 구지활용과 창업 준비에 나선 50~60대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자 어양 센트럴파크 상가 매입에 나설 계획이며, 수소 버스 충전소를 목천동에 추

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부지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신중년 일자리센터와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하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익산형일독립운동기념관과 익산글로벌문화관을 방문해 시설별 운영사항 전반을 확인하고 기능과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익산형일독립운동기념관이 인근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하는 방안과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오토·레저캠핑쇼 개최

도내 최대 규모의 캠핑·레저 박람회인 '2022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CC)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캠핑카 캠핑용품, 낚시용품 등 50여개 업체, 300여개 부스 규모로 VIP 코리야매거진포터쇼, RC가 체험존, 나무도마 만들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MZ세대 타겟으로 한 감성 캠핑용품부터 오토캠핑을 겨냥한 캠핑카와 카리반까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캠핑 및 레저 용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동안 '2022 새만금레저낚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안정적 공급 위해 공업배수지 증설 추진

군산시는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 내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을 추진한다.

나운 공업배수지는 지난 1990년 1만톤 1지로 건설돼 일반산업단지 6개 업체에 일 평균 4만3,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나운 공업배수지는 1지로 운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될 경우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문제점이 있어 왔다.

특히 배수지내 슬러지가 과다 퇴적으로 저기 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주업체의 휴업이나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을 포함한 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배수지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 2025년까지 배수지 증설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